



1930년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광주 시가지. 지면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읍성의 골격과 주거지 형태, 태봉산, 무등산 자락, 광주천, 시장 등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광주읍성 철거... 역사의 한부분이 지워졌다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1. 읍성에서 시작된 광주

광주일보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먼저 광주와 관련된 자료 3만 여건의 자료 가운데 비공개·중복·개인 자료 등을 제외한 1000여 건의 기록물 및 사진·도면 등을 건네 받았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일제강점기 발간 책자, 신문 등의 자료를 참조해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 1952년까지 급속히 도시로 성장하는 광주의 변천 과정을 20차례에 걸쳐 답을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과 이에 저항하는 지역민의 투쟁 속에 광주의 외형과 내부는 왜곡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광주는 이를 통해 호남 제1의 도시로 부상했으며, 구도심, 광주천 등 지금의 기본틀은 이 때 모두 결정된 것이다.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광주목은 동헌과 관아 등이 모여 있는 읍성을 중심으로 두고 동서남북에 자리한 41개 면으로 구성돼 있었다. 읍성 내라는 의미의 성내면을 핵으로 기래방면, 부동방면, 공수방면, 편방면 등 '읍사방'이 지금의 구도심이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명칭이 전해지고 있는 오치면, 흑석면, 칠석면 등이 외곽에 포함됐다.

특원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광주의 근대기록에서는 1888년 광주읍성 내에는 135호에 747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광주군의 당시 호수는 7753호였다.

1897년 목포항 개항 등으로 인해 급 성장하고 있는 호남 중추도시였다. 따라서 이 읍성을 없애 시가지지를 만들고,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야 했던 일제는 1909년부터 1916년까지 수년에 걸쳐 이 성벽들을 허물었다. 그렇

만 1462명 여 1만9714명, 일본인 1695명(남 911명 여 784명), 기타 49명 등 모두 4만2910명이었는데, 1923년 2만435호 인구는 10만명(10만39명)을 넘어섰다.

로 인해 일제는 위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 상·하수도 설치, 학교 등 교육기관도로 개설, 광주천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예방 및 주거·상업지역 마련 등에 나선 것은 그 이후다.

주하면서 일제가 특별히 관리하는 지정면이 된 광주면은 외곽에 해당하고 한국인이 대부분인 광주군의 다른 면보다 더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모든 기반시설 공사는 광주면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면서 1923년 1차, 1935년 2차에 걸쳐 주변 면을 흡수하는 식으로 면적을 넓혀갔다.

그리고 1931년에 읍이 되고, 1935년은 부로 승격하면서 광주군은 광주부와 광산군으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1988년 광산군의 광주시 편입 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청·전라남도청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1888년 읍성엔 135호 747명 거주... 행정중심지

1909~16년 성벽 철거... 중앙·중양·서석로 탄생

군대 이동·일본인 거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치한 후인 1907년 성벽처리위원회를 두고 각 지역 핵심도시에서 자리한 읍성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항일 의병이 곳곳에서 일어나 그들을 토벌하기 위한 대규모 군대 이동이 불가피했고, 일본인 거주가 본격화되면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급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말기 주요 도시의 도로는 매우 좁았으며, 토지소유권 분쟁 없이 이들 읍성을 철거한 자리를 도로로 쓰려 했던 것이다. 또 도시의 중심부에서 있는 성벽의 철거는 일제에 의한 인위적인 도시 개발의 서곡이기도 했다.

1906년부터 일제는 주요 개항장, 즉 진남포, 목포, 영일만, 군산 등과 평양, 광주, 대구, 전주 등 주요 지방 도시, 그리고 서울을 잇는 도로를 놓았다. 이 도로가 식민지 조선의 주요 생산물들의 일본으로의 착취, 그리고 군사 배치를 통한 식민지 통치 등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읍성이 철거되고, 목포를 통한 일본인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광주의 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각 통계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1912년 광주군의 인구는 한국인 4만1176명(남 2

게 해서 탄생한 것이 지금의 중앙로 1~3가, 중앙로, 서석로, 수창로 등이다. 이 읍성 철거와 함께 국도 경복선(경성~목포)도 들어섰다.

1913년 광주에 속해 있던 갈전면과 대치면이 담양군으로, 함평군의 오선면이 광주로 편입됐지만 그 외형은 유지됐다. 그러다 1910년 강제병합과 함께 시작된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1911~1917)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1914년의 광주군 내 면 폐지 및 병합은 과거 역사를 송두리째 지우고, 인구 1000호를 기준으로 15개 면으로 통·폐합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등장하는 면의 명칭, 중심지인 광주면을 비롯한 지한·석곡·우치·본촌·비야·하남·임곡·송정·동곡·서창·대촌·극락·서방·효천 등은 대부분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철저히 그들의 입맛에 맞춰 도시를 개조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주읍성의 철거다. 이 읍성이라는 폐쇄된 공간에는 동헌, 객사, 향청 등 기관들이 집적돼 있었다. 마치 지금의 행정중심타운과도 같은 기능을 했다는 것이다. 국가기

인구 특히 일본인의 거주인구 증가

중심시가지로 일본인들이 주로 거

/윤희철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시대부터 1935년까지 광주 행정구역 변천과정

◇ 조선시대



1914년 광주군 내 면 폐지 및 병합 이전의 광주군.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러한 형태가 유지돼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 1914년



일제는 1914년 호수 1000호를 기준으로 기존 광주군 41개면을 15개면으로 정비했다.

◇ 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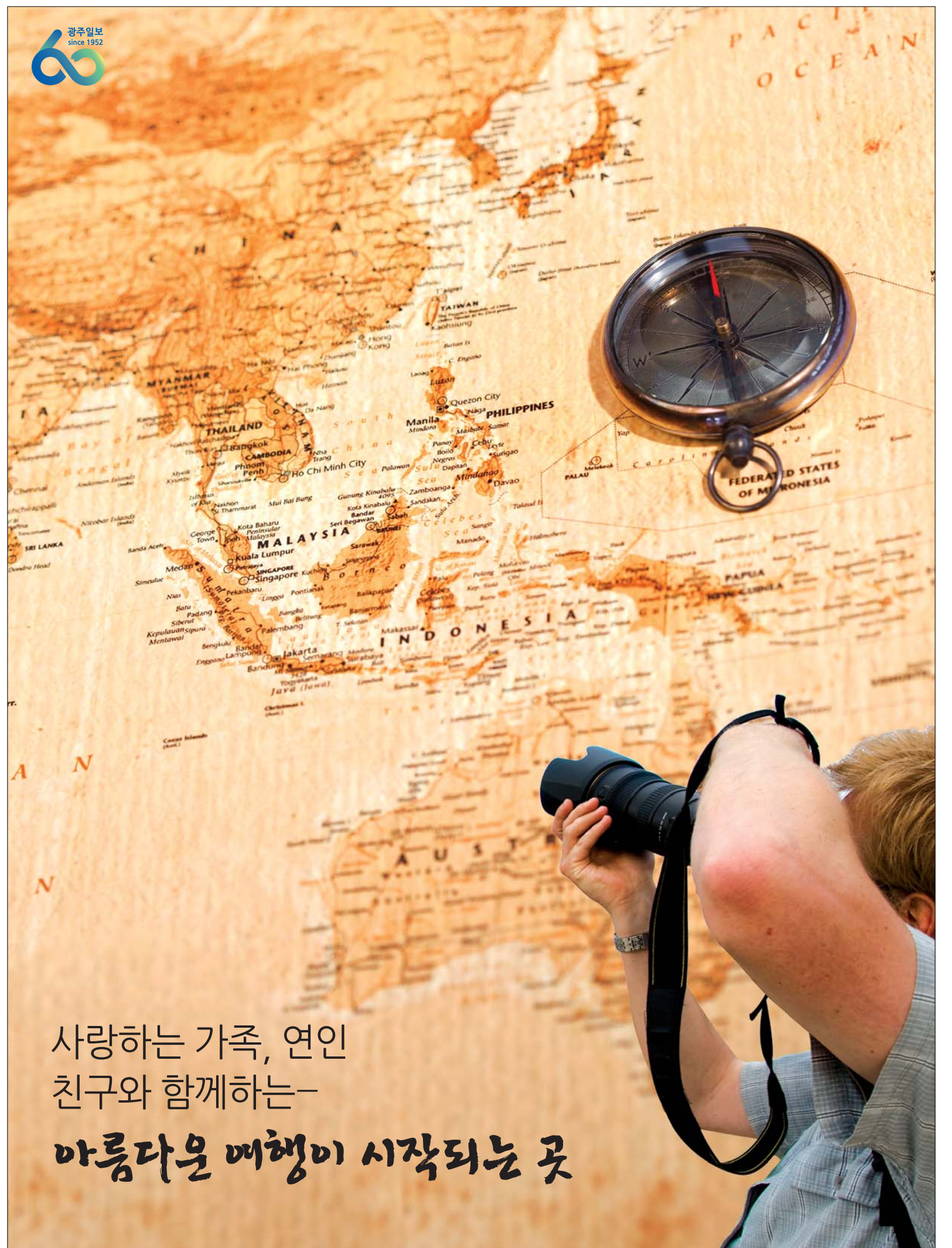


1923년 주요시가지인 광주면이 주변 면의 일부를 흡수했다.

◇ 1935년



1935년 당시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되면서 광주군은 광산군과 광주부로 나뉘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하는 - 마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 헬로우 제주 ☎ 369-5300
- 우림여행·클럽모두 ☎ 228-1990
- 정남진 투어 ☎ 1577-7616
- 투어클럽 ☎ 382-8201
- 환상제주 ☎ 675-0064